

실존예술임상치료¹⁾ 1강

죽음학의 부정성과 예술 존재론 I

예술은 왜 죽음의 언어인가

임 병식(죽음학자 · 철학박사 · 의학박사 · 미학자)

<1강 요약>

본 강좌는 예술을 기존의 표현주의적 관점에서 재고하고, 죽음학의 핵심 개념인 부정성의 구조를 통해 예술의 존재론적 발생 조건을 새롭게 정식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예술치료 및 미학 담론은 예술을 대체로 개인 내부에 이미 형성된 감정과 경험을 외부로 드러내는 표현의 수단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의미와 감정이 이미 조직되어 있고, 주체가 그것을 일정한 기호 구조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전제를 공유한다. 본 강좌는 이러한 전제가 죽음과 상실의 한계상황 앞에서 근본적으로 붕괴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죽음의 부정성은 단순한 결핍이나 부재가 아니라, 의미와 발화가 중단되고 기존의 해석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존재론적 조건이다. 이 점에서 부정성은 해체의 힘인 동시에 새로운 생성의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강좌는 하이데거의 존재론, 야스퍼스의 한계상황, 블랑쇼의 재앙, 데리다의 해체, 라캉의 기표와 공백, 후설의 시간의식, 베크의 죽음 부인, 랭어의 상징 형식, 아도르노의 예술 자율성, 메를로-퐁티의 몸의 지각, McNiff의 예술치료론을 이론적 자원으로 삼아, 예술을 더 이상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백과 침묵 속에서 존재가 사건으로 발생하는 장”으로 재정의한다.

특히 본 강좌는 공백을 단순히 없음이 아니라 의미 발생의 잠재적 조건으로, 침묵을 단절이 아니라 발화 생성의 경계로 이해한다. 이로부터 예술은 죽음을 재현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구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언어로 규정된다. 다시 말해 예술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거나 이미 붕괴된 자리에서 새로운 발화 가능성을 생성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관점은 예술치료의 개념 또한 재구성하게 한다. 치료는 더 이상 표현된 내용을 해석하는 과정이 아니라, 존재가 다시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 죽음학에서 언급된 <실존예술치료>는, “상실과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실존성**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문양(장르)**을 **실현함**으로써 **치유(치료)**에 이르게 되는가”의 의미이다. 이렇게 <실존-예술-치료>를 명사형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 풀이했을 때 비로소 은폐되고 억압되었던 익명성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2인칭도 3인칭도 아닌 1인칭의 주체가 형성된다. 즉 타자의 문법에서 주체의 문법이 건립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대상화된 치료의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다. 예술 그 자체는 행위 실천자가 지닌 성향, 기질, 정서, 감정, 상상, 인식의 패턴 등 삶의 문양(장르, 삶의 양태)이다. 예술의 어원은 ‘기술(techne)’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능적 기술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표현, 창조, 그리고 공감을 폭넓게 담아내는 기술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에서는 ‘기술(techne)’ 개념이 “**사물 그 자체가 자신의 본성(physis)으로 귀의하는 길(방식)**”의 의미이다. 따라서 예술은 인간의 모든 의미, 사고, 언어가 몸(삶)의 미적 차원에서 발생한다. 이런 미적 차원에 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실존적 한계상황, 질성(신체의 느낌), 상상, 감각운동 과정의 패턴, 정서이다. 인간은 이미지를 자신이 이해한 언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것이 예술의 장르다.

마지막으로 본 강좌는 “그릴 수 없는 것을 그리기”라는 비형상 작업의 존재론을 통해, 형상이 붕괴된 자리에서 예술이 어떻게 공백을 드러내고,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발화와 존재 가능성을 생성하는지를 논의한다. 이로써 예술은 단순한 표현의 장이 아니라, 죽음의 부정성을 통과하여 존재가 다시 발생하는 사건의 장으로 정식화된다. 본 강좌는 예술을 죽음의 언어로 이해함으로써, 죽음학, 예술치료, 존재론, 언어철학 사이의 새로운 학제적 접속 가능성을 제시한다.

핵심어 : 죽음학, 부정성, 예술 존재론, 공백, 침묵, 한계상황, 의미 생성, 비형상 작업, 예술치료, 존재 사건

I. 서론: 죽음의 부정성과 예술의 발생 조건

현대 임상 및 예술치료 담론에서 ‘표현(expression)’은 오랫동안 핵심 개념으로 기능해 왔다. 예술은 개인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감정과 경험을 외부로 드러내는 매개로 이해되었고, 치료는 그러한 표현을 해석하고 의미화함으로써 정서적 긴장을 완화하고 심리적 통합을 도모하는 과정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와 같은 관점은 예술을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심리적 내용을 외화하는 도구로 전제하며, 그 과정에서 형성된 상징과 기호를 해석하는 일이 치료의 중심 과제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해는 Susanne K. Langer가 예술을 ‘감정의 형식적 표현’으로 파악했던 미학적 전통과도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하나의 결정적 전제를 공유한다. 그것은 인간이 이미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일정한 기호 구조로 조직할 수 있다는 전제이다.³⁾ 다시 말해, 예술은 이미 형성된 의미와 감정이 존재한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작동하는 이차적 장치로 이해된다. 이러한 전제는 일상적 삶의 차원에서는 일정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으나, 죽음과 상실이라는 한계상황 앞에서는 근본적으로 붕괴된다.

죽음의 상황, 혹은 급격한 상실의 경험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 없게 된다. 언어는 중단되고, 감정은 명명되지 않으며, 경험은 더 이상 의미로 조직되지 않는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표현의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구조적 단절이다. Ernest Becker가 지적했듯, 인간은 죽음이라는 근본적 사실 앞에서 심리적·문화적 방어 체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지만, 그 방어가 붕괴되는 순간 존재는 심연과 직접 대면하게 된다. 이때 우리 앞에 드러나는 것은 감정의 과잉이라기보다, 의미 자체의 붕괴이다.⁴⁾

2) 현대 예술에 대해 더 이상 자명한 것은 없다는 아도르노의 선언은 예술의 존재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시 사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Susanne K. Langer, *Feeling and Form: A Theory of Art Developed from Philosophy in a New Key*(New York, NY: Charles Scribner's Sons, 1953), 15-28.

3) 예술을 내면의 정서와 경험을 외부로 드러내는 표현의 매개로 이해하는 전통은 표현주의 미학과 예술치료 초기 담론 전반에 널리 분포해 있으며, 랭어는 이를 “감정의 논리적 형식”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같은 책, 40-58.

4) Ernest Becker, *The Denial of Death*(New York, NY: Free Press, 1973), 11-30.

이 지점에서 예술은 더 이상 ‘표현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다. 오히려 보다 근원적인 질문이 발생한다. 즉, 표현 이전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말해지기 이전에 무엇이 발생하는가, 의미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거나 이미 붕괴된 자리에서 예술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은 예술을 단순한 기호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기존의 틀을 넘어, 예술을 존재의 발생 조건으로 재사유할 것을 요구한다. Adorno가 “예술에 대해 자명한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철학적으로 압축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⁵⁾ 이 명제는 예술이 더 이상 안정된 의미 전달 구조가 아니라, 불확정성과 단절, 그리고 의미 이전의 상태와 깊이 결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강좌는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출발한다. 본 글에서는 예술을 더 이상 ‘표현’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고, 존재가 사건으로 발생하는 조건으로 재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조건을 죽음학의 핵심 개념인 ‘부정성(negativity)’으로부터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때 부정성은 단순한 결핍이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의미와 발화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거나, 혹은 기존의 의미 구조가 붕괴한 상태를 가리킨다. 부정성은 말해지지 않음이며, 공백이고, 중단이며, 단절이며, 시간의 비연속이다. 따라서 부정성은 단순한 ‘없음’이 아니라, 의미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잠재적 상태이자 기존의 의미가 해체된 이후에 남는 잔여 상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특정 시점에 도래하는 하나의 외적 사태라기보다, 이미 인간 존재 전체를 규정하고 있는 구조이다. 인간은 언제나 죽음을 향해 존재하며, 그 구조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성한다. 그러나 일상적 삶 속에서는 이 구조가 은폐되거나 지연된다. 반면 상실과 죽음의 경험은 이 은폐를 걷어내고 존재의 구조를 전면에서 드러낸다. 그 결과 언어는 더 이상 익숙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의미는 붕괴되며, 주체는 자신의 위치를 상실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은 단순한 감정 표현의 기능을 넘어선다. 예술은 “말해질 수 없는 것을 견디는 구조”이며, “공백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 즉 예술은 이미 형성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 속에서 새로운 발화 가능성을 생성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이 점에서 예술은 치유의 결과가 아니라,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⁶⁾ 예술은 해석과 의미 부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의미가 붕괴된 자리에서 존재가 다시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존재론적 장치이다.

결국 “예술은 왜 죽음의 언어인가”라는 질문은 단순히 예술의 기능을 묻는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가 어떻게 의미를 잃고, 또 어떻게 다시 의미를 생성하는가를 묻는 보다 근본적인 존재론적 질문이다.⁷⁾ 본 강좌는 이 물음을 통해 죽음과 예술, 언어와 존재 사이의 관계

5) Theodor W. Adorno, *Aesthetic Theory*, trans. Robert Hullot-Kentor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7), 1. 아도르노의 “예술에 대해 자명한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명제는 예술을 안정된 재현 체계가 아니라 역사적 붕괴와 비자명성 속에서 다시 사유해야 함을 압축한다.

6) 본 강좌는 예술을 치료의 결과적 표현물이 아니라, 의미 붕괴 이후 존재가 다시 발화 가능성을 획득하는 조건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기존 표현주의 예술치료 담론과 구별된다.

를 새롭게 정식화하고자 한다.

II. 죽음학의 부정성: 결핍이 아닌 구조

죽음학에서 ‘부정성’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부정이나 결핍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무엇인가가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가 스스로 구성하는 방식 자체를 드러내는 구조적 원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기존의 심리학이나 임상 담론에서는 상실, 결핍, 부재와 같은 현상을 주로 정서적 부족이나 병리적 상태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경험의 표면적 양상만을 기술할 뿐, 그 경험이 어떤 존재론적 구조 속에서 발생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본 강좌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죽음과 상실의 경험을 ‘부정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다시 정의하고자 한다. 이때 부정성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다. 그것은 기존의 의미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 즉 존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구조적 상황을 가리킨다. 이 점에서 부정성은 특정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존재의 해석 구조가 붕괴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Heidegger의 존재론에서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얻을 수 있다.⁸⁾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단순히 삶의 종결이 아니라, 현존재가 자기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튼 가능성이다. 죽음은 존재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존재를 구성하는 내부의 조건이다.⁹⁾ 인간은 자신의 죽음 가능성 앞에서 자기 존재 전체를 다시 물을 수밖에 없으며, 바로 그 지점에서 익숙한 의미 구조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동시에 Blanchot는 ‘재앙(disaster)’이라는 개념을 통해, 의미와 언어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상태를 사유하였다.¹⁰⁾ 그에게 재앙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말할 수 없음 자체가 드러나는 자리이다.¹¹⁾ 이 지점에서 부정성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언어와 의미가 중단되는 구조적 조건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정성은 결핍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것은 존재가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는 상태, 즉 의미 이전의 상태이자 의미 이후의 상태로 이해되어야 한다.

부정성의 구조를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Jaspers의 한계상황 개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야스퍼스에 따르면 인간은 일상적 삶 속에서는 일정한 의미 구조와 언어 체계를

7) 죽음학에서 말하는 ‘부정성’은 단순한 부재의 심리학이 아니라, 의미 구조의 붕괴와 발화 불가능성의 조건을 지시하는 존재론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 점에서 본 논문은 일반 심리학적 결핍 개념과 죽음학적 부정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8) Martin Heidegger, *Being and Time*, trans. John Macquarrie and Edward Robinson (New York, NY: Harper & Row, 1962), 279-311.

9)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단순한 생물학적 종말이 아니라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며, 이 가능성은 현존재가 자기 존재 전체를 근원적으로 되묻게 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같은 책, 294-296.

10) Maurice Blanchot, *The Writing of the Disaster*, trans. Ann Smock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95), 1-12.

11) 블랑쇼에게 재앙(disaster)은 단순한 파괴 사건이 아니라, 의미와 발화의 질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상태, 곧 “말할 수 없음” 자체가 전면화되는 구조를 가리킨다. 같은 책, 7-9.

통해 자기 존재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그러나 죽음, 고통, 죄책, 투쟁과 같은 한계상황에 직면하면, 그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한계상황은 단순한 외적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내적 질서를 붕괴시키는 사건이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정성이다.¹²⁾

한계상황에서 부정성은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기존의 의미 체계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경험은 설명될 수 없는 상태로 남는다. 또한 시간의 연속성은 단절되고, 현재는 정지된 듯한 상태로 경험된다. 더 나아가 주체는 자신을 통합된 존재로 인식하던 방식에서 분열되거나 해체된다.¹³⁾ 이처럼 부정성은 단순히 심리적 괴로움이 아니라, 존재 구조의 변형 자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부정성은 단지 붕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정성은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의 조건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중적이다. 기존의 구조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구조의 생성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이 점에서 Derrida의 해체 개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데리다에 따르면 의미는 결코 완전히 고정되지 않으며, 항상 지연되고 미끄러진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연과 미끄러짐 때문에 새로운 의미의 가능성이 열린다. 해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가능성의 개방이다.¹⁴⁾

이 관점에서 보면 부정성은 해체와 생성이라는 두 가지 운동을 동시에 품고 있다. 기존의 의미 구조를 무너뜨리는 힘인 동시에, 새로운 의미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힘이다. 의미가 붕괴되는 순간, 그 자리는 공백으로 남는다. 그러나 바로 그 공백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이 된다. 따라서 부정성은 단순한 상실이나 파괴의 이름이 아니라, 존재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조건이다.

언어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조직하고 의미를 부여하지만, 부정성의 상태에서는 언어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말은 중단되고, 문장은 완성되지 않으며, 반복과 파편, 과잉 설명과 침묵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의미 전달의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발화 구조 자체의 붕괴이며, 말이 아직 가능하지 않거나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상태의 표지이다.

따라서 죽음학의 부정성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부정성은 존재의 결핍이 아니라, 존재가 다시 발생하기 위한 구조적 조건이다. 이 명제는 본 강좌 전체의 이론적 토대를 이룬다. 이후 논의에서 보게 되듯이, 바로 이 부정성의 구조가 예술의 발생 조건과 깊이 연결된다.

III. 예술의 재정의: 표현에서 사건으로

12) Karl Jaspers, *Philosophy, Volume 2*, trans. E. B. Asht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0), 178-210.

13) 야스퍼스의 한계상황(Grenzsituation)은 회피할 수 없는 죽음, 고통, 죄책, 투쟁의 조건을 통해 인간의 일상적 자기이해를 붕괴시키는 실존의 계기로 설명된다. 같은 책, 186-194.

14) Jacques Derrida, *Writing and Difference*, trans. Alan Bas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278-293. 데리다의 해체는 의미의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고정된 중심의 붕괴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장을 여는 운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기존 예술치료 담론에서 예술은 주로 ‘표현’의 범주 안에서 이해되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예술은 개인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감정이나 경험을 외부로 드러내는 매개이며, 치료는 그렇게 표현된 내용을 해석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예술은 심리적 내용의 외화 과정으로 간주되며, 감정과 의미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인식론적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모델은 경험에서 의미로, 의미에서 기호화로, 기호화에서 표현으로 이어지는 재현 구조를 전제한다.¹⁵⁾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죽음과 상실의 한계상황 앞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성의 상태에서는 감정이 명명되지 않으며, 경험은 더 이상 의미로 조직되지 않고, 언어 또한 익숙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때는 ‘표현할 내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술을 여전히 표현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존재의 근원적 단절이 드러나는 장면을 오해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가 아니라, 표현 이전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의미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술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물어야 한다. 이 질문은 예술을 단순한 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존재의 발생 조건으로 재정의할 것을 요구한다.

표현 중심 모델은 본질적으로 재현의 구조를 따른다. 재현은 대상과 의미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며, 예술은 그 대상을 다시 상징적 형태로 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¹⁶⁾ 그러나 죽음의 부정성이 전면화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재현의 전제가 무너진다. 대상은 더 이상 안정적으로 지시되지 못하고, 의미는 선행하지 않으며, 경험은 서사적 연속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예술은 더 이상 무엇인가를 ‘다시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인가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장이 된다.¹⁷⁾

본 강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을 다음과 같이 재정의한다. 예술은 표현이 아니라, 존재가 사건으로 발생하는 조건이다. 여기서 사건(event)이란 단순한 시간적 발생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존재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구성되는 계기를 의미한다. 사건은 존재 바깥의 사태가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방식이다.¹⁸⁾

이러한 관점은 Heidegger의 존재론과도 맞닿아 있다. 죽음이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

15) 표현 중심의 예술 이해는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경험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예술은 그것을 외화하는 이차적 매개라는 인식론적 전제를 공유한다. 이러한 구조는 ‘내면→표현’이라는 재현 모델에 의존한다.

16) Susanne K. Langer, *Feeling and Form*, 59-88. 랭어는 예술을 감정의 직접적 방출이 아니라 감정의 형식적 현전화로 이해하였으나, 여전히 예술이 어떤 내적 정동 구조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는 표현의 논리를 전제한다.

17) Adorno, *Aesthetic Theory*, 2-9. 아도르노는 예술 작품을 단순한 표현의 용기가 아니라 역사적 긴장과 부정성이 응축된 자율적 장으로 본다.

18) 본 논문에서 ‘사건(event)’은 단순한 시간적 발생이 아니라 존재가 특정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형성하는 계기를 의미한다. 이는 예술을 결과물이 아니라 발생의 장으로 이해하기 위한 존재론적 재정의이다.

로서 존재를 근원적으로 드러내는 구조라면, 예술 또한 기존 의미 구조를 해체하면서 존재가 다시 드러날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한다.¹⁹⁾ 이 점에서 예술과 죽음은 동일한 구조적 조건을 공유한다. 죽음이 의미를 붕괴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것처럼, 예술 역시 기존의 의미를 해체하면서 새로운 의미가 발생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한다. 따라서 예술은 죽음을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일한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 사건이다.²⁰⁾

예술을 사건으로 이해할 때, 의미의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표현 모델에서는 의미가 이미 존재하며 예술은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사건으로서의 예술에서는 의미가 사전에 완결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은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다. 예술은 의미를 생성한다. 이때 의미는 작품 안에 고정된 내용으로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작품과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예술은 해석의 대상이기 이전에, 의미가 발생하는 장이다.²¹⁾

그리고 이 발생은 언제나 공백에서 시작된다. 공백은 단순히 없음이 아니라, 의미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동시에 그것은 새로운 의미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공간이다. 예술은 바로 이 공백을 유지하고, 그 공백 속에서 무엇인가가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이다. 예술은 공백을 채우기보다 보존한다. 왜냐하면 공백이 유지될 때에만 의미는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예술은 더 이상 표현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가 스스로를 형성하는 장이며, 주체가 자신을 단순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예술치료의 개념도 근본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치료는 더 이상 의미를 해석하거나 감정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존재가 다시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예술은 바로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예술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가 사건으로 발생하는 장이다. 기존의 표현 모델이 전제했던 의미와 주체의 안정성은 죽음의 부정성 앞에서 붕괴한다. 바로 그 붕괴의 자리에서 예술은 새로운 역할을 획득한다. 예술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성하며, 그 생성은 항상 공백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예술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존재가 스스로를 새롭게 구성하는 사건이다. 이 점에서 예술은 죽음의 언어이며, 동시에 죽음을 통과하여 다시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이다.

19) Heidegger, *Being and Time*, 307-311. 죽음이 존재를 가장 고유하게 드러내는 가능성이라면, 예술 역시 기존 의미 구조의 해체를 통해 존재가 다시 사건적으로 드러나는 계기를 형성할 수 있다.

20) 하이데거에 있어서 죽음불안은 '실존상황성'이다. 불안은 현-존재가 이미 현시된 진리의 구조를 확인하게 하는 그런 개현(開現)의 의미를 지닌다. 현-존재는 이미 이 세상에 던져져 있는 그런 존재 양식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현-존재는 그 던져져 있음에서 '근본적 마음 상태(Grundbefindlichkeit)'를 늘 기분, 또는 습기로서 느낀다. 그런 기분 가운데서 근본적으로 스산한 느낌, 또는 자기 존재에 있지 않음의 고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불안 정서다. 그러므로 불안은 현-존재의 근본적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 또 다른 한편으로 현-존재는 자기-본래성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가능 존재'이므로 불안 정서의 예기감은 기존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하이데거는 이처럼 현-존재가 과거의 마음 상태와 미래의 존재 가능성 사이에 있는 존재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21) 예술을 '의미 전달'이 아니라 '의미 생성'의 장으로 보는 관점은, 작품을 이미 완성된 내용의 저장고로 보기보다 작품-주체-상황의 관계 속에서 의미가 비로소 발생하는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표현주의와 구별된다.

IV. 공백과 침묵: 존재의 발생 조건

앞선 논의에서 드러났듯, 죽음학적 부정성은 의미의 붕괴와 발화의 중단, 그리고 주체 구조의 흔들림을 동반한다. 이러한 부정성의 핵심에는 하나의 결정적 요소가 놓여 있다. 그것이 바로 공백이다. 일반적으로 공백은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결핍이나 부재로 이해된다. 그러나 죽음과 상실의 한계상황에서 드러나는 공백은 이러한 통상적 이해를 넘어선다. 본 강좌는 공백을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의미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자 동시에 의미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조건으로 재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백은 부정성의 결과가 아니라, 부정성이 드러내는 존재의 근원적 구조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죽음과 예술, 발화 사이의 관계 역시 충분히 해명될 수 없다. 공백은 결핍이 아니라 생성의 장이다. 의미는 이 장에서 미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발생하며, 발화 또한 전달이 아니라 형성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공백의 구조를 언어적 차원에서 사유하기 위해서는 Lacan의 기표 이론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라캉은 무의식을 단순한 심리적 내용의 저장고가 아니라, 기표의 구조로 이해하였다.²²⁾ 그의 유명한 명제,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말은 무의식이 의미의 고정된 집합이 아니라 기표와 기표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구조임을 뜻한다.²³⁾ 이때 중요한 것은 의미가 결코 완전히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미는 기표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지연되며, 항상 미끄러진다. 바로 이 지연의 구조 속에서 간극이 발생하고, 그 간극이 공백으로 드러난다.²⁴⁾

따라서 공백은 의미가 결여된 상태가 아니다. 오히려 의미가 완전히 고정되지 못하는 구조적 조건이다. 이 조건 속에서 의미는 끊임없이 생성되면서도 완결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공백은 언어의 실패가 아니라 언어의 가능성 자체를 지탱하는 조건이다.²⁵⁾

공백의 구조는 시간의 차원에서도 드러난다. Husserl의 시간의식 이론에 따르면 현재는 고정

22) Jacques Lacan, *É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NY: W. W. Norton, 1977), 146-178.

23) 라캉의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명제는 의미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기표의 차이와 지연 속에서만 작동함을 보여준다. 같은 책, 159-166.

24) 라캉은 상처가 생기는 메커니즘이 마치 언어처럼 구조화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 규칙은 다름 아닌 하나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전환하여 구성하는 것이다. 비록 외부적 충격으로 유기체 내부의 안정화가 무너져도, 유기체는 그 충격의 이미지를 다른 이미지로 대체해서라도 다시 안정화를 찾는다.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은 존재 그 자체가 상처이다. 라캉에 있어서 상처의 치유방법은, 신체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언어적으로 내려티브화 하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감정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위치와 관점이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내’가 ‘이것을’ 느낀다고 말할 때, 이것은 나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한다. 그리고 이때 자기를 감정의 수동적인 희생자가 아닌 책임지는 ‘주체’로, 즉 응집력 있는 자기(coherent self)로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이 곧 치유의 과정이다.

25) Jacques Lacan,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I: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NY: W. W. Norton, 1998), 203-215. 라캉에게 공백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기표의 미끄러짐과 욕망의 결여 구조가 드러나는 자리이다.

된 점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의 긴장 속에서 성립한다.²⁶⁾ 현재는 보유(retention)와 예기(protention)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항상 완전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다. 바로 이 ‘사이’의 상태가 공백이다.²⁷⁾ 이 공백은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시간적 생성의 조건이다. 만약 현재가 완전히 고정된 점이라면 변화도 생성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가 언제나 미완결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과 의미가 형성될 수 있다.²⁸⁾

이처럼 공백은 비어 있음과 가능성이라는 이중구조를 가진다. 공백은 비어 있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고, 바로 그 비어 있음 때문에 새로운 것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따라서 공백은 제거되어야 할 결핍이 아니라 유지되어야 할 구조이다. 대부분의 실천은 공백을 빠르게 채우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은 오히려 공백이 지닌 생성 가능성을 차단할 위험을 내포한다.

공백과 긴밀히 연결되는 또 하나의 개념은 침묵이다. 일반적으로 침묵은 말이 없는 상태로 이해되지만, 본 강좌는 침묵을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발화가 아직 생성되지 않은 상태로 재정의한다.²⁹⁾ 침묵은 발화 이전의 상태이자 발화 이후의 상태이며, 의미 이전과 의미 이후, 존재 이전과 존재 이후의 경계에서 작동한다. 이러한 경계는 단절이 아니라 전환의 지점이다. 침묵은 발화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은 공백과 침묵의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예술은 공백을 채우지 않는다. 오히려 공백을 보존하고, 그 공백 속에서 무엇인가가 발생하도록 한다. 또한 예술은 침묵을 제거하지 않는다.³⁰⁾ 침묵은 발화의 부재가 아니라 발화가 생성되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은 공백과 침묵을 통과하는 사건이다. 그것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을 드러내며, 이 점에서 죽음의 부정성과 동일한 구조 속에서 작동한다.

26) Edmund Husserl, *On the Phenomenology of the Consciousness of Internal Time*(1893-1917), trans. John B. Brough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34-52.

27) 후설의 시간의식 이론에서 현재는 점적인 정지가 아니라 보유(retention)와 예기(protention)의 긴장 속에서만 성립한다. 이 점에서 현재는 항상 미완결적이며, 바로 그 미완결성이 생성의 조건이 된다. 같은 책, 41-47.

28) 프로이트 임상 기법의 핵심은 사후성(Nachträglichkeit)에 있다. 사후성은 현재의 심상에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감(예감, 직감)하면서 과거의 사건(이미지, 인상, 기억-사물표상)을 현재의 관점에서 떠올려 회상(재구성-선택, 비교, 판단)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사건의 전모를 인과적 이해(단어표상)를 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이트는 ①흥분되고 긴장된 자극을 해소하거나, ②사물 표상으로서의 이미지(무의식)를 적합한 단어 표상으로 상징화, 의미화(의식화)하는 것, ③불쾌한 사물 표상을 좋은 이미지로 연관시키거나 대체, 환기하는 것을 치료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만일 ①, ②, ③의 요소를 온전히 대면(직면)하거나 할 수 없다면(즉 주체의 부재) 외상이 된다.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주체는 사건이 주는 자극과 이미지에 대해 저항(대면, 직면)하는 의미에서의 주체이다. 증상, 회상, 반복 강박, 재현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무의식적 성충동(자아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재가 도래하는, 즉 사물 표상이 단어 표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충동)이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에서 주체라 말할 수 있다. 만일 사건에 대한 회피와 도피, 연기, 금지와 억압, 대체물로만 이루어진다면, 주체가 들어설 자리가 없고 치료와 더욱 멀어진다. 따라서 정신분석의 요체는 ‘무의식의 의식화’에 있다.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은 ①적합한 단어 표상, ②올바른 연결(이해와 의미화), ③주체의 재현 작업 과정이다.

29) 본 강좌에서 침묵은 단순한 비언어 상태가 아니라 발화 이전과 발화 이후를 동시에 품는 경계적 구조로 정의된다. 따라서 침묵은 의미 부재가 아니라 의미 생성의 잠재적 조건이다.

30) 공백을 빠르게 해석이나 설명으로 채우는 실천은, 오히려 그 공백이 지닌 생성 가능성을 조기 봉합할 위험이 있다. 이런 점에서 공백을 건디는 태도는 단순한 수동성이 아니라 존재론적·윤리적 실천이다.

결국 다음과 같은 존재론적 정식화가 가능하다. 공백은 발화의 조건이며, 발화는 존재의 조건이다. 따라서 공백은 존재의 조건이다. 존재는 완결된 실체가 아니라, 공백과 발화 사이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과정이며, 예술은 바로 그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건이다.

V. 예술은 왜 죽음의 언어인가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술은 왜 죽음의 언어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술의 기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죽음이 어떤 존재론적 구조를 공유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앞선 논의를 통해 우리는 죽음을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존재를 규정하는 구조로 이해하였고, 예술을 감정이나 의미를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존재가 사건으로 발생하는 조건으로 재정의하였다. 또한 공백과 침묵을 의미의 결핍이 아니라 의미 발생의 조건으로 정식화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할 때, “예술은 왜 죽음의 언어인가”라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재정식화될 수 있다. 죽음은 의미를 붕괴시키는 구조이며, 예술은 의미 이전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예술은 죽음의 구조와 동일한 조건에서 작동한다. 이 명제는 예술과 죽음의 관계를 단순한 주제적 유사성의 관계가 아니라, 구조적 동일성의 관계로 이해하도록 만든다. 즉 예술은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작동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한다.³¹⁾

죽음은 인간의 의미 구조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지만, 이 붕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다. 그것은 의미가 더 이상 고정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사건이다.³²⁾ 죽음 앞에서 인간은 더 이상 기존의 언어로 자신을 설명할 수 없으며, 경험은 더 이상 안정된 서사로 조직되지 않는다. 이때 나타나는 것은 공백이며, 침묵이며, 말해지지 않음이다. 예술 역시 동일한 구조를 따른다. 예술은 이미 형성된 의미를 전달하지 않으며, 의미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다. 예술은 의미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한다. 이 점에서 예술은 죽음과 동일한 구조를 공유한다.

예술의 구체적 특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동일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무엇보다 예술은 말해지지 않음을 다루는 구조이다. 그것은 단순히 표현되지 않은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명명될 수 없는 상태를 품는다. 이러한 상태는 죽음의 경험과 닮아있다. 죽음은 설명될 수 없고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예술은 바로 이 말해지지 않음을 제거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 머문다.

또한 예술은 공백을 유지하는 구조이다. 예술은 공백을 채우지 않는다. 오히려 공백을 보존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둔다. 이 공백은 의미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자, 동시에

31) 죽음과 예술의 관계를 주제적 유사성의 문제로만 다룰 경우, 예술은 죽음을 묘사하거나 상징화하는 수단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양자의 관계를 구조적 동일성의 차원에서 이해한다.

32) Blanchot, *The Writing of the Disaster*, 28-36. 죽음과 재앙의 언어는 설명과 재현을 거부하며, 말해질 수 없음과 함께 머무는 형식을 요구한다.

의미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다. 더 나아가 예술은 침묵을 포함하는 구조이다.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발화가 생성되기 직전의 상태이며, 예술은 이 침묵을 작품의 일부로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예술은 의미를 지연시키는 구조이다. 예술은 의미를 즉각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오히려 열어두며 불완전한 상태로 유지한다. 이 지연은 의미의 실패가 아니라 의미가 생성되는 과정이다.³³⁾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술은 더 이상 죽음을 설명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 설명은 이미 형성된 의미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죽음은 설명될 수 없는 구조이며, 그 앞에서 설명은 종종 경험을 왜곡할 위험을 갖는다. 따라서 예술은 설명 대신 머뭇을 선택한다. 머뭇이란 공백과 침묵 속에 머물며, 그것을 성급히 제거하지 않고 견디는 태도이다. 이 태도는 소극적 무기력이 아니라 적극적인 윤리적 선택이다. 예술은 죽음을 해석하려 하지 않는다. 예술은 죽음과 함께 머문다. 그리고 바로 그 머뭇 속에서 존재는 다시 구성될 가능성을 획득한다.³⁴⁾

결국 다음과 같은 구조가 드러난다. 죽음은 공백을 드러내고, 공백은 발화의 조건이며, 발화는 존재의 조건이다. 따라서 예술은 공백 속에서 발생하는 발화이며, 그 발화는 존재를 사건으로 형성한다. 이 점에서 예술은 죽음을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죽음과 함께 말하는 언어이다.³⁵⁾

VI. “그릴 수 없는 것을 그리기”: 비형상 작업의 존재론³⁶⁾

죽음의 부정성이 드러나는 지점에서 가장 먼저 붕괴되는 것은 형상이다. 형상은 단순한 시각적 모양이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조직하는 기본 구조이다. 형상은 대상의 경계를 설정하고 의미를 안정시키며, 경험을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묶는다. 그러나 상실과 죽음의 상황에서는 바로 이 형상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대상의 경계는 흐려지고, 의미는 고정되지 않으며, 세계는 더 이상 안정된 형상들의 집합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은 더 이상 형상을 재현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예술은 형상이 붕괴된 자리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전통적 미학에서 ‘그리기’는 대상을 재현하는 행위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죽음의 부정성이 전면화된 상태에서는 대상, 인식, 의미라는 연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리기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그려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릴 수 없음’을 견디는 실천으로 전환된다.

본 강좌가 제안하는 “그릴 수 없는 것을 그리기”라는 명제는 바로 이 전환을 압축적으로 보여

33) Derrida, *Writing and Difference*, 292-293. 의미는 언제나 지연되며, 이 지연 자체가 새로운 생성의 여지를 남긴다. 따라서 죽음의 구조와 예술의 구조는 모두 의미의 즉각적 완결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서로 상응한다.

34) Adorno, *Aesthetic Theory*, 132-140. 예술은 현실의 단순한 반영이 아니라, 현실의 파열과 비동일성을 형식 안에 보존함으로써 사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다.

35) 본 논문에서 “예술은 죽음의 언어”라는 명제는 예술이 죽음을 묘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죽음이 드러내는 공백·침묵·의미 붕괴의 구조 속에서 예술 역시 작동한다는 존재론적 의미로 사용된다.

36) “그릴 수 없는 것을 그리기”라는 명제는 재현의 실패를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상 이전의 공백을 직접 경험하고, 그 공백 속에서 새로운 발화 가능성이 발생하도록 하는 존재론적 실천을 가리킨다.

준다.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명제는 부정성의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드러낸다. ‘그릴 수 없음’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의미와 형상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비형상 작업은 단순한 추상미술이나 비재현적 예술의 한 양식이 아니다. 그것은 형상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상태를 드러내는 존재론적 실천이다. 비형상 작업은 의미 이전의 상태를 가시화하고, 감응의 충위를 드러내며, 공백을 직접 경험하게 만든다. 선의 떨림, 압력의 변화, 리듬의 반복, 중단의 순간은 감정의 완성된 표현이 아니라, 감정이 형성되기 이전의 감응 구조를 드러낸다.³⁷⁾ 이 점에서 비형상 작업은 감응을 발화로 전환하기 이전의 단계에 위치한다.³⁸⁾

“그릴 수 없는 것을 그리기”라는 실천은 임상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는 대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와 마주하게 된다.³⁹⁾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듯한 순간, 그려야 할 형상이 사라진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부정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 상태는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가 기존의 형상 구조를 상실한 상태이며, 동시에 새로운 발화 가능성이 준비되는 자리이다.⁴⁰⁾

중요한 것은 이 공백을 성급히 채우려 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치료적 개입은 이 상태를 빠르게 의미로 전환하려 하지만, 그러한 개입은 오히려 발화의 가능성을 조기에 봉합할 수 있다. 본 강좌는 공백을 유지하고, 그 상태를 견디는 것을 핵심 실천으로 제안한다. 왜냐하면 발화는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공백 속에서 점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⁴¹⁾

37) 자신만의 고유한 진실성은 신체에 감각된 증상이다. 따라서 죽음학의 부정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은 고통(증상)을 온전히 맞이하는 결단에 있다. 그 결단은 다음의 심적 기제를 동반하면서 치유에 이르게 된다. ① 상실(결핍, 결여, 불안, 외로움)의 감정에서 자유롭기, ② 치열하게 깨어있기, ③ 그래서 더 단단해지기, ④ 과거의 나를 전복시키고 진실과 대면하기, ⑤ 더 이상 기존의 질서가 규정한 질서에 쉽게 편입하거나 순응하지 않기, ⑥ 친숙하거나 편안함에 길들이지 않기, ⑦ 과거의 나(자아-에고)를 강화하지 않고 해체하기, ⑧ ‘자신을 없이 하는 방식’의 ‘무’를 창조의 공간으로 만들기다.

38) Maurice Merleau-Ponty,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Donald A. Landes (London: Routledge, 2012), 95-147. 메를로-퐁티는 몸의 지각을 반성 이전의 세계 관계 방식으로 이해하며, 이는 비형상 작업에서 감응의 흔적을 해석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메를로-퐁티는 감정의 체화를 신체적 습관과 관련된 ‘감각-운동회로’로 설명하며, 외상이나 트라우마가 체화되지 않으면 해리나 억압과 같은 병리적 상태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는 자아를 ① 습관적 자아, ② 현재적 자아, ③ 환상을 느끼는 자아로 나누며, 이들이 감정과 기억을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설명한다. 체화를 통해 감정과 기억을 재현하고 표현하는 것이 치유와 현실 인식에 필수적이며, 체화과정에서 주체적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감정 이미지가 억압되지 않고 신체와 연계되어 온전한 자각을 이루도록 돕는다.

39) Shaun McNiff, *Art as Medicine: Creating a Therapy of the Imagination*(Boston, MA: Shambhala, 1992), 1-25.

40) McNiff는 예술치료를 결과물 해석의 기술이 아니라 형성 과정 자체에 개입하는 상상력의 치료로 이해한다. 같은 책, 26-41. 이 관점은 본 논문이 비형상 작업을 단순한 추상 표현이 아니라 존재가 다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천적 근거를 제공한다.

41) 죽음학의 핵심어 ‘부정성’에 대한 접근 방법론이 ‘실존정신언어분석’이다. ‘실존정신언어분석’에서는 ‘발화’를 신체와 유리된 언어기호를 신체로 돌려놓는(putting the mind back into the body)과정으로 본다. 그래서 실존정신언어분석에서의 관건은, 타자의 문법을 폐기하고 자신만의 인지 문법을 다시 창안하고자 함에 목적을 둔다. 자신의 언어가 아닌 한 모든 언명은 우화이다. 우화가 아닌 실재를 출현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언어-기호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실존정신언어분석’에서는 침묵과 몸의 언어를 먼저 분석한다. 신체를 포획하는 언어-기호는 누가 만든 것인가? 즉 말해지고

비형상 작업은 결국 감응에서 형식으로, 형식에서 단어로, 단어에서 문장과 서사로 나아가는 생성의 경로를 연다. 그러나 이 생성은 어디까지나 공백이 보존될 때에만 가능하다. 이 점에서 비형상 작업은 단순한 예술 기법이 아니라 존재론적 사건이다. 그것은 형상이 붕괴된 자리에서 공백을 드러내고, 그 공백 속에서 존재가 다시 발생하도록 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비형상 작업은 예술이 왜 죽음의 언어인지를 실천적으로 입증하는 장이 된다.

명명된 시점, 명명되기 이전의 사태는 어떠했는가? 이는 기존 기표 담론구조를 해체해서 최초의 기표가 어떻게 은유했는지. 그 기표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먼저 존재(실재)를 표지하는 첫 번째 기표인 증상에서 출발한다.

참고문헌

국내

- 임병식 외 (2023). 『죽음학교본』, 한국싸나톨로지협회.
- 임병식 외 (2025). 『죽음교육교과서』, 한신대 죽음교육연구소.
- 임병식 (2025). 「실존정신언어분석과 부정성의 언어구조」, 『실존예술치료』 논문집.
- 임병식 외 (2025). 『죽음교육교과서』, 한신대 죽음교육연구소.
- 임병식(2025). 「죽음학의 부정성과 현상학적 지각」, 2025년 2학기 FT강좌.
- 임병식(2025). 「현상학과 실존상황: 후설과 메를로-퐁티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2025년 2학기 FT강좌.
- 임병식(2025). 「죽음학적 부정성의 언어화: 후설과 메를로-퐁티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2025년 2학기 FT강좌.
- 임병식(2025). 「실존정신언어분석과 죽음학의 언어치유론」, 『죽음교육교과서』, 한신대학교 죽음교육연구소
- 이정우 (2017). 『말과 존재의 철학』.

국외

- Adorno, T. W. (1997). *Aesthetic Theory*(R. Hullot-Kentor, Tran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70)
- Becker, E. (1973). *The Denial of Death*. New York, NY: Free Press.
- Blanchot, M. (1995). *The Writing of the Disaster*(A. Smock, Trans.).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80)
- Derrida, J. (1978). *Writing and Difference*(A. Bass, Tran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eidegger, M. (1962). *Being and Time*(J. Macquarrie & E. Robinson, Trans.). New York, NY: Harper & Row.(Original work published 1927)
- Husserl, E. (1991). *On the Phenomenology of the Consciousness of Internal Time* (1893-1917) (J. B. Brough, Trans.).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Jaspers, K. (1970). *Philosophy, Volume 2*(E. B. Ashton, Tran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Original work published 1932)
- Lacan, J. (1977). *Écrits: A Selection*(A. Sheridan, Trans.). New York, NY: W. W. Norton.
- Lacan, J. (1998).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I: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A. Sheridan, Trans.). New York, NY: W. W. Norton.(Original seminar delivered 1964)
- Langer, S. K. (1953). *Feeling and Form: A Theory of Art Developed from Philosophy in a New Key*. New York, NY: Charles Scribner's Sons.
- McNiff, S. (1992). *Art as Medicine: Creating a Therapy of the Imagination*. Boston, MA: Shambhala.
- Merleau-Ponty, M. (2012). *Phenomenology of Perception*(D. A. Landes, Trans.).

London: Routledge.(Original work published 1945)